



주연으로 호흡 맞춘 이영애(왼쪽)와 김영광.

이영애, 26년만에 KBS 드라마 출연 “멜로 여주 아닌 마약상”

KBS2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 20일 첫 방영

거액 필요한 주부가 우연히 마약을 입수한 뒤 벌어지는 일 그려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심리 추적... 일상 속 진정한 가치 화두 던져

“KBS에서 올 한해 가장 밀어주는 드라마이고, 여러분도 집중해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이어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은수 좋은 날’로 26년 만에 KBS 드라마에 복귀하는 배우 이영애가 신작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영애는 서울 구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KBS 2 TV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작품의 재미였다”며 “평범한 주부의 심리가 변해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수 좋은 날’은 거액의 돈을 구해야 하는 주부 강은수(이영애 분)가 우연히 마약을 입수한 뒤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마약 판매를 시작한 은수가 점차 욕망에 사로잡히는 과정이 펼쳐진다.

1999년 ‘초대’ 이후 처음으로 KBS 드라마에 출연하는 이영애는 주부라는 공통 분모 덕에 쉽게 작품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 2001년 출연한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딸은 배역 이름이 은수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영애는 “저도 집에서는 평범한 가정주부여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주부의 위험한 일탈을 다루면서 우리가 진정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봄날은 간다’와 배역 이름이 같아) 드라마가 잘 되겠구나 싶었다. 영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애는 드라마 ‘사마귀’에 출연하는 고현정,

‘금쪽같은 내스타’의 엄정화, ‘복극성’의 전지현 등 베테랑 여배우들과 비슷한 시기에 드라마 주연으로 나서게 됐다. 그는 여배우들이 활약하는 모습이 뿌듯하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자극받는다고 했다.

이영애는 “오랫동안 해온 여배우로서 자극도 받고, 그들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오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며 “좋은 기운을 받아서 저의 작품도 잘될 것이라 믿는다”고 환하게 웃었다.

배우 김영광은 방과 후 미술강사이자 은수의 마약 판매 동업자 이경을 연기하고, 박용우는 마약수 사탕장 장태구 역을 맡았다.

김영광은 촬영 중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이영애와 손을 잡고 단풍이 든 은행나무 사이를 달려가는 장면을 꼽았다. 김영광은 긴박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마쳤는데, 정작 연출로부터 멜로 장면을 찍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아 의아했다고 떠올렸다.

당시를 돌아본 송현욱 연출은 “(이영애는) 카메라만 가져다 대면 장르가 멜로로 바뀐다”며 “분명 긴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장면인데, 은수가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이 감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배우들은 작품이 마약을 소재로 하지만 재미와 감동도 있어 깊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우는 “저는 감히 이 드라마가 재미와 감동, 여운이 함께하는 보기 드문 작품이라고 말씀드릴다”며 “시청자 입장에서 보고 나면 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수 좋은 날’은 오는 20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글로벌 미디어 콘퍼런스’-영화감독 봉준호

“영상시장 OTT로 재편돼도 영화의 본질은 스토리텔링”

“극장 구조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다가 도저히 멈출 수 없어서 내리지 못해 2호선 순환선을 한 바퀴 더 돌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18일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위주로 재편된 영상 시장에 대해 “관객들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원한다는 영화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창작자에서 설계자로: 경계를 파괴하는 세계의 구축법’을 주제로 마크 톰슨 CNN CEO(최고경영자)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봉 감독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만든 거대한 물결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이 국내에서 최초의 넷플릭스 영화 ‘옥자’ (2017)를 연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영화를 개봉할 때 (넷플릭스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칸 영화제에서도 아무도 영화 스토리는 질문 안 하고 스트리밍과 관련된 것만 물어보더라”고 말했다.

봉 감독은 사실 TV, 인터넷, 케이블, 스트리밍 등 영화를 위협하는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시네마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시청자가 자의적으로 ‘멈춤’을 누를 수 없는 극장이 사랑스러운 수밖에 없지만, 멈춤 버튼을 누르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창작자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봉 감독은 최근 문화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AI(인공지능)에 대한 솔직한 생각도 드러냈다.

그는 “영화인들도 밥 먹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집에 가면서도 늘 AI를 이야기한다”며 “우리가 믿고 매혹된 영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AI가 뒤쫓았을기에 두려움과 흥분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인간성의 본질을 파고든 영화 ‘미키 17’에서도 AI 기술이 사용됐다는 아이러니가 이 같은 점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봉 감독은 “미키 17” 영화에서 한 화면에 두 미키, 즉 두 로버트 패틴슨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의 시작 효과에서 아이러니하지만 AI의 도움을 받았다. AI가 비주위에 사용된 케이스”라며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해 인간성이 어떻게 위협받는가, 그 와중에 인간의 정겨움과 지질함은 남아있다는 걸 다루는 영화에서도 도구적으로 AI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5년간 총 여덟 편의 장편영화를 연출한 그는 아홉 번째로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고 있다. 그는 “이야기를 큰 화면에서 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충동에 의지해서 매번 작품을 만든다”고 창작의 동력을 설명했다. 봉 감독은 전 세계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킨 K-컬처에 대해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BTS) 같은 분들은 알파벳 ‘K’가 필요 없는 그냥 팝스타”라며 “뛰어난 재능이 있는 플레이어와 그들을 둘러싼 인터스트리의 합작품에 박수를 보낼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특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에 대해 “(한국계) 매기 강 감독도 있지만, 그것을 만든 회사, 제작진, 스튜디오는 한국 회사가 아니다. 외국 회사가 자연스럽게 (한국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김구 선생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신다’라는 말도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걸 기쁘게 지켜보고 있다. 다만 제가 뭔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폭삭 속았수다’ 뉴미디어 콘텐츠상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날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5년 뉴미디어 콘텐츠상 시상식’에서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폭삭 속았수다’가 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 청춘들의 삶과 모험을 사계절의 서사로 풀어냈다.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오르며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다.

중·장편 드라마 부문 우수상은 조선시대 인물 허균이 현대에 와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허식당’이, 단막·숏폼 드라마 부문 우수상은 이성을 해매는 귀신을 성불시키는 세탁소 이야기를 담은 ‘귀신도 세탁이 되나요?’가 차지했다.

예능 부문에선 다섯 명의 아이가 다양한 수업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랜선육아왕: 꽃꼬마 프로젝트’가, 교양 부문에선 성소수자 가족의 삶을 조명한 ‘모든 패밀리’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부문 우수상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내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헌정하는 과정을 담은 ‘선물’에 돌아갔다.

뉴미디어 발전에 기여한 사업자에게 수여하는 특별상은 티빙과 밤부네트워크가 받았다.

올해 8회를 맞은 뉴미디어 콘텐츠상 시상식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서비스된 우수 영상콘텐츠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작자·사업자에게 포상해 뉴미디어 제작 환경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주여당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석 당 화 랑

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물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 당 화 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민생 경공매 연구소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2층
경력 30년 대표 토목식각, 재밌게 공부하며 함께 투자 가능
총 40시간 수강료 200만원, 민법/집행법/행정법/기초의
기초~실전 유제출산 특강
☎ 010-7638-6918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로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 대 화 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율컨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을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光州日報